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9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충성! 군포교 이상 무!" 육 · 해 · 공군 각 부대에서 군포교에 진력할 신임 군승 12명이 자대 배치를 받고 전법의 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0일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을 비롯해 선임군승 7명과 신임군승 12명의 예방을 받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신임 군승이 진우 스님에게 임관 신고를 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역대급 '극한호우'에 불교유산 피해 확산

조계종 · 문화재청, 피해 현황 집계 발표

불교 국보 · 보물 등 7건 피해
부석사 조사당 도로 토사 유입
다수 전통 · 일반사찰 비 피해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역대급 '극한호우'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부석사 조사당 등 불교문화유산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7월 19일 현재 총 50건의 국가유산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불교 관련 국가유산 피해는 총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국보 부석사 조사당도 있었다. 나흘간 900mm의 호우가 쏟아진 영주에 소재한 부석사 조사당은 주차장 및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조사당 옆 취현암 주변은 토사가 유실되기도 했다. 현재는 진입로 복구작업에 들어갔고, 관람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보물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비로자나불좌상은 경내 법면 토사가 유실됐다.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물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은 석탑에서 2m 이격된 석축 중 일부가 붕괴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추후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승'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석축 일부가 붕괴됐으며,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으로 토사가 유입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방수포를 설치하고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호우로 인해 사적인 순천 선암사의 경내 해천당의 기와가 탈락되고, 무우전 담장이 붕괴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피해발생 지역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누적 강수량 500mm가 쏟아진 사적 익산 미륵사지는 문화재 구역 내 법면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은 "피해 직후 문화유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응급복구 및 추가훼손 방지를 위해 긴급보수사업 신청 중에 있다"면서 "피해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8월 중 긴급보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의 비 피해도 속출했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이 7월 17일 공개한 '집중호우 피해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통사찰 13곳, 일반사찰 1곳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건, 충북 1건, 전북 2건, 전남 1건, 경북 4건으로 모두 충청 이남 지역에 해당됐다.

전통사찰은 공주 마곡사가 수목 전도로 출입구가 막혔으며, 응진전과 명부전 기와가 탈락했다. 논산 쌍계사 역시 진입부 수목이 전도됐으며, 관촉사는 주차장이 침수됐다.

전북에서는 전주 서고사 대웅전 후면의 수목이 전도됐다. 장수 영월암은 수목 전도로 인해 법당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북은 예천 용문사 마을 입구 도로가 유실되면서 주차장이 피해를 입고 경내에 토사가 유입됐다. 명봉사는 산신각 옆 주차장에 피해가 발생했고, 문경 대승사도 진입로 토사 유입으로 침하와 암자 도로 유실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청, 문체부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피해발생 사찰에 대한 복구 지원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호우 피해 복구위해 팔 걷다

조계종 등 긴급구호모금 추진
조계사 · 도선사 구호기금 전달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7월 18일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불교조계종 긴급구호선발조사단을 파견, 피해상황 파악과 주변 사찰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경북 예천 및 충청지역 정확한 현장의 호우피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찰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으며 호우피해 지역 파악과 관련 현지상황을 논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긴급모금 및 피해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태종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 성금 모금과 함께 생활물품도 모집한다. 모금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충남 공주로 현장 조사단을 파견,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 전개 및 지원을 계획 중이다.

사찰들은 수해복구과 이재민을 위한 성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전국적으로 사찰 피해도 커서 조계사가 먼저 마음을 내고자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2000만원과 생수 2만7000병을 기탁했다. 태원 스님은 "수해 희생자를 위해 위령재를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 임은호 기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K-불교 알리기' 나선다

문화사업단, 금산사 등서
사찰 전통문화체험 진행
템플스테이 홍보관 운영
대회 전후 템플스테이도

4년마다 펼쳐지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들의 대회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171개국 청소년 5만 명이 모이는 대회에서 '한국불교 알리기' 불사가 본격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대회 기간 영외과정활동 사찰문화체험을 비롯해 새만금 템플스테이 홍보관, 대회 전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먼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외과정활동은 전북도 14개 시 · 군이 보유한 자연 · 전통 · 문화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사업단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에서 당일 템플라이프를 진행한다.

현재 프로그램에 접수된 방한 외국인 청소년은 총 8900여 명으로 이들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에서 △사찰 성보문화재 해설 △연꽃등 만들기 △트레킹 △다도 △인경 △K-팝 댄스 배우기 △요가 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공동홍보구역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텔타 지역에서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운영된다. 약 400㎡ 규모로 운영되는 홍보관에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와 추천을 비롯해 실시간 예약 창구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합장주 만들기 △템플스테이 사진전 △사찰음식 모형 전시 △다국어 홍보물 관람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한, 대회 전후로 4박 5일 동안 한국을 지역별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국불교 체험이 이뤄진다. 여행 경비가 모두 자부담임에도 7월 20일 기준 독일, 덴마크 등 8개국 3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를 신청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에서만 약 28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골굴사, 금산사, 낙산사, 불국사 등 전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잼버리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장 내에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된다. 단주 만들기, 소원 연꽃등, 풍경 만들기, 나만의 상상붓다 그리기, 함께 완성하는 소원탑 그리기, 108배 챌린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가국 예불 체험도 가능하다.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몽골과 대만 등의 예불을 경험해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